

중랑구 환경을 고려한 공공장소의 벤치디자인 개발연구¹

조숙경^{† 2} · 오세자²

Development of Bench Design for Public Places in term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Jungnang-Gu¹

Sook-Kyung Cho^{† 2} · Se-Ja Oh²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creation of bench design to be placed in the public spaces for the citizen who live in Jungnang-Gu. In Jungnang-Gu surrounded by the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like Jungnang-stream, Mangwoo Mt., Bongwha Mt. and Youngma Mt., there are many public places where a citizen can take a rest. Among the public facilities being in such public places however, the benches especially were installed so unplanned and disordered, even that they look unbalanc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though they need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park and walking paths. Hereupon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in Jungnang-Gu and furthermore to develop the bench-design on the basis of the investigation.

The concept of design lies in modern style of a bench matched up with the nature well and also taking the functional aspect for rest,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places utilized by the abundant natural greens. The environment-friendly timber, marble and metal were used here and the design with and without the back of a bench & the dimension for Korean people's figure were considered.

Keywords: Jungnang-Gu, bench-design, public space.

1. 서론

1-1 연구목적

서울시가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면서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 전역에 설치되어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25개 구 중의 하나인 중랑구도 디자인중랑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공공디자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망우산, 봉화산 그리고 용마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 논문접수: 2008. 12. 02. 이 논문은 2008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 서일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College, Seoul, Korea, 131-702.

† Corresponding author: Sook-Kyung Cho(E-mail: kassel95@chol.com).

중랑천이 흐르는 중랑구는 푸르른 자연환경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역사적인 명소가 없다. 또한 공업단지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있지도 않고, 일반 생활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린(green)정책에 맞추어 자연환경의 장점을 잘 살린 도시디자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주거공간을 아름답고 안락하게 꾸미기 위한 가구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하나 많은 시간들을 공공장소에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구(Street Furniture)를 선정하는 데는 무관심하다. 형태가 서로 조화롭지 못한 쓰레기통과 벤치, 그리고 서로 다른 디자인의 가로등이 뒤섞여 늘어진 거리는 어지러울 정도로 보기 흉하다. 이러한 것은 디자이너와 행정관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거나, 관계기관의 계획성 없는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장소의 많은 시설물 중에서도 시민들의 사용빈도수가 가장 많은 벤치는 중요한 거리가구로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랑구의 환경을 고려하여 공원 및 중랑천 둔치 등의 공공장소에 놓여지는 벤치를 연구·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 이후 중랑구의 공공디자인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중랑천, 망우산, 봉화산, 용마산 등 중랑구의 지역적·환경적 조건과 공공장소의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그곳에 놓여져 있는 벤치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랑구의 환경을 고려한 벤치디자인을 연구한다.

연구방법은 인터넷과 전문서적을 통하여 중랑구에 대한 지역적·환경적 조건과 국내·외 벤치자료를 수집한다. 벤치자료는 독립적으로 놓여지는 독립형과 연계성을 가지고 놓여져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가변형 벤치로 분류한다. 중랑구의 공공장소를 현장답사하고 벤치의 현황을 파악하며, 자료수집을 토대로 컨셉을 설정하고, 아이디어 스케치 및 도면 그리고 렌더링을 통하여 벤치를 완성한다.

2. 중랑구 공공장소 환경현황

2-1 지리적·환경적 조건

2-1-1 중랑천

중랑천은 경기도 불국산에서 물줄기가 시작되어 한강으로 흘러드는, 총길이가 20km에 이르고 최대너비가 150m되는 하천이다. 서울시 구간부터 동부고속화도로가 중랑천과 나란히 뻗어있고, 중랑천 변은 도로와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목동교부터 이화교까지의 중랑천 둔치 상단과 장안철교 부근은 꽃밭을 조성하여 산책로를 만들었다. 이 꽃길을 따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대여소가 있으며, 동부고속화도로의 옆 독일길, 장안교와 중랑교 사이는 차를 통제해 시민들의 산책코스로 만들었다. 장안교 북단 중랑천 둔치에는 자연학습장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고추, 토마토 등의 식용작물을 심고 가꿀 수 있도록 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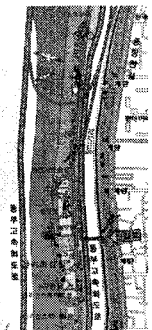


Fig. 1. Jungnang-stream.

자전거 연습장과 농구장, 배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어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장과이 2005)

2-1-2 망우산

망우산은 망우동과 면목동, 경기도 구리시에 걸쳐있는 산으로 서울 시립장묘사업소 망우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로 지정된 것을 1933년 경기도의 임야 일부를 경성부에서 양도받아 공동묘지로 사용하게 되면 서부터이다.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공동묘지로 약 28,500개의 분묘가 있으며, 1973년 봉분이 가득 차 더 이상 묘지 쓰는 것이 금지된 이후 현재는 이장과 납골을 장려하면서 분묘는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망우리 공원에는 어린이운동의 효시인 방정환,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인 오세창, 한용운 등의 애국지사 묘역이 있으며, 산책로 주변에 이들의 넋을 기리는 연보비가 설치되어 역사의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8년에는 산책로인 사색의 길이 만들어졌으며, 자연관찰로, 종합안내관, 나무정자, 약수터 등이 설치되어 휴식 및 자연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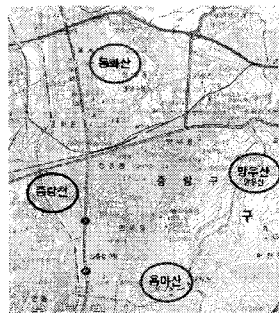


Fig. 2. Map of Jungnang.

(http://culture.jungnang.seoul.kr/inc.php?inc=tour/01_mangwoo)

2-1-3 봉화산

봉화산은 중랑구 상봉동, 중화동, 묵동, 신내동에 둘러싸여 있고, 평지에 돌출되어 있는 독립구릉인 야트막한 산이다. 그렇지만, 동쪽에 아차산의 주능선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쪽과 남쪽으로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남산과 한강 이남지역도 잘 보이고, 북쪽으로 불암산, 도봉산과 양주 일대까지 잘 조망할 수 있다. 이곳은 경기도 한이산에서 연락을 받아 목멱산 제1봉수로 전 달하는 아차산 봉수대가 있던 곳으로, 지난 1994년에 봉수대를 복원하였다. 산의 높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봉수대로 사용했을 만큼 전망이 좋고, 가파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르기 좋은 산이다.

봉화산 근린공원은 중랑구청 뒤에 2006년에 조성되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점토벽돌로 포장된 진입광장을 비롯하여 어린이 놀이터, 널뛰기와 전통그네를 타볼 수 있는 전통놀이마당, 주민 건강마당, 야외무대 및 주민 쉼터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공원을 따라 순환하며 조깅을 할 수 있는 외곽산책로와 공원 정상부에 잔디마당,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력단련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봉화공원에는 5개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길을 따라 설치된 여러 곳의 체력단련장에서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구청을 찾아온 주민들이 구청의 정문에서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위치에 인공폭포가 만들어져있으며, 다양한 야외 문화예술 공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벤트 광장이 인공폭포와 연계되어 있다. 중랑구청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봉화산 숲속여행이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구청 뒤 공원에서 국수나무 관찰대, 팔배나무 관찰대, 봉수대, 소나무숲, 초본류 식재지에 이르는 2시간정도 소요되는 탐방코스를 월 2회 마련하여, 산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생태에 관한 설명을 숲 해설가에게 들을 수 있다.

2-1-4 용마산

용마산은 중랑구의 가장 높은 산으로 아차산의 최고봉이다. 면목동의 동쪽에 위치하고, 망우

리공원, 중국동 간의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등산로를 통해 망우리에서 아차산성을 거쳐 어린이 대공원 후문 근처까지 이어진다. 산이 가파르지 않아 가볍게 산행을 즐길 수 있고, 정상에 오르면 서울시의 동남부 도시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으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펼쳐진 서울의 광활한 분지지형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용마폭포공원은 일제시대 골재 채취장으로 사용되다가 버려진 산을 보기 좋게 꾸민 곳으로 용마산 암벽을 이용하여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 (Fig. 3)와 공원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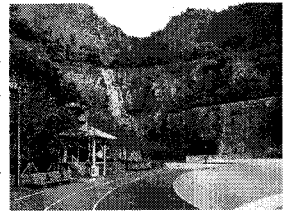


Fig. 3. Artificial falls.

공원에는 초록색 인조잔디가 싱그러운 넓은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소운동장,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다. 사가정공원은 면목약수터지구 입구에 조성되었으며, 공원의 이름은 용마산 부근에서 거주했던 조선 전기의 문인인 서거정 선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의 호를 따서 지어졌다. 또한 그의 대표시 4편을 골라 시비를 만들어 설치함으로써 공원이용객들이 산책과 함께 명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는 피크닉장,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자연형 시냇물, 전통 정자인 사가정, 다목적 광장, 냇가 휴게소 등 다양한 휴게시설과 운동시설, 조경시설이 갖춰져 있어 사람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이자 중랑구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랑구의 지리적·환경적 조건은 아래 표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Table 1. Current Environment of public places in Jungnang-Gu

	시설현황	기능	특징
중랑천	자전거 연습장, 농구장 배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 기구, 장미거리, 원두막	체육시설 산책로 자연학습장	-교통의 관문 -뛰어난 접근성
망우산	서울시립장묘사업소 망우묘지 연보비, 사색의 길 자연관찰로, 나무정자, 약수터	공동묘지 역사 교육장 산책로	-281.7m의 낮은 산 -애국지사 묘역 -뛰어난 접근성
봉화산	봉수대, 산신각, 광장, 인공폭포 어린이 놀이터, 널뛰기, 전통그네 농구장, 체력단련장 잔디마당, 야외무대, 주민쉼터,	산책로, 휴게시설 전통놀이체험 생태체험장 체육시설, 공연장	-160.1m의 낮은 산 -독립구름 -좋은 조망 -뛰어난 접근성
용마산	인공폭포, 어린이 놀이터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소운동장 체력단련시설 피크닉장, 전통정자, 광장, 냇가 휴게소	산책로 휴게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348m의 아차산의 최고봉 -아차산에 이르는 등산로 -좋은 조망 -뛰어난 접근성

2-2 중랑구 공공장소의 벤치 현황

2-2-1 중랑천 벤치

중랑천의 장미거리는 주거지역과 가깝고, 둔치의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들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들이 편리하게 되어있어서 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많다.

벤치는(Fig. 4)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산책로의 옆에, 둔치의 상단에서 추락을 방

지하는 철조망 앞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 후에 벤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산책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의 곡선적인 디자인이 잘 드러나 보이지만, 옆의 운동기구는 흰색으로 도장되어 있는 반면, 벤치의 철재구조물은 파란색으로 도장되어 주변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받이가 없는 벤치는 앉음새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형적으로 수평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시원하게 보이고, 등받이가 있는 벤치보다 서로 관계없는 사람끼리의 동석을 심리적으로 쉽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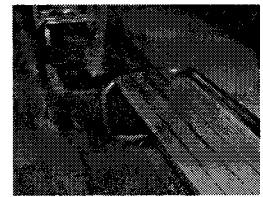


Fig. 4. Bench in Jungnyang- stream.

2-2-2 봉화산 벤치

봉화산 공원의 벤치는 필요에 따라 시간을 두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자인의 벤치들이 혼돈스럽게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다. 벤치는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강한 햇살과 폭우 또는 눈을 맞는 등의 가혹한 실외조건에 견디고, 부패하지 않게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외조건들은 벤치의 내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사용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쉼터(shelter)는 비를 피하는 장소, 피난소, 또는 헛간, 은신처 등을 의미하지만 현재에는 일반화되어 지붕모양인 것을 쉼터라 한다. 햇빛을 가려주고, 눈을 막아주며, 비바람이나 번개로부터 지켜주는 쉼터를 봉화산 공원의 잔디마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쉼터 아래 설치된 벤치는 (Fig. 5) 쉼터의 크기와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설치되었으며, (Fig. 6)와 같이 울타리를 넘어 잔디 주위의 대리석에 앉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Fig. 5. Benches in pavilion.



Fig. 6. Marble bench.



Fig. 7. Round shape bench.

2-2-3 용마산 벤치

용마폭포공원은 아파트단지의 바로 뒤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공원의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원을 찾은 노인들을 볼 수 있다. 보도블럭이 깔린 진입로는 넓어서 간격을 두고 나무가 심어져있다. 나무를 가운데에 두고 벤치를 원형으로 설치된 모습이 주변경관과 잘 어울린다. 하지만 비교적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벤치의 수가 적게 설치되어 벤치에 가득 앉은 노인들 옆에 자리를 펴고 바닥에 앉은 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산책하기에는 좀 가파르기 때문에 아래쪽의 공원진입로의 벤치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고, 진입로에 큰 나무가 많아 위쪽보다 그늘이 많다.(Fig. 7)





진입로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용마산의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이 있으며, 그 울타리 주변에 산책로가 있다. 산책로 바깥쪽에 축구장을 볼 수 있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

는데, (Fig. 8) 잔디위에 설치되어 주변의 잔디가 흉하게 벗겨져 있다. 진입로의 모던한 형태의 벤치와는 다른 고전적인 디자인이며, 등받이와 좌판을 곡선적인 철재가 지지해주며 다리의 역할도 한다. 용마폭포 앞의 소운동장 주변에도 유사한 디자인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벤치는 사용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여 오랜 시간동안 휴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등받이는 없고 팔걸이만 있는 형태는 벤치에 누워서 혼자 벤치를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여러 명이 앉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타인끼리 2인용 벤치를 이용하게 될 때 한사람이 먼저 앉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온 이용자는 심리적으로 앉기가 거북해 결국 혼자 이용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Fig. 8. Bench.

Table 2. Current Benches of public places in Jungnang-Gu

	이미지	특징
중랑천		목재 좌판에 금속다리로 만들어진 등받이 없는 벤치
망우산		등받이 없는 벤치 목재 좌판과 다리 셀터와 결합
봉화산		등받이없는 벤치 목재좌판, 철재다리 등받이있는 벤치 다양한 디자인
용마산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디자인 팔걸이만 있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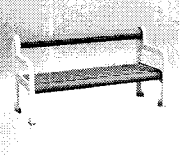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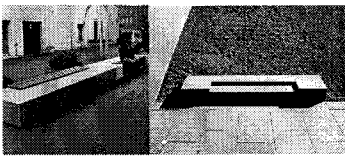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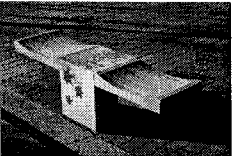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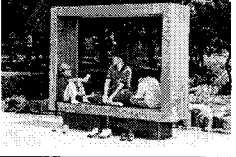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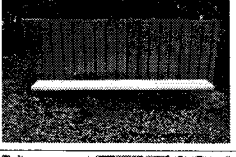



3. 중랑구 환경을 고려한 벤치디자인 개발

3-1 벤치마킹

자료 수집은 크게 혼자 놓여지는 독립형과 여러 개가 이어져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는 가변형으로 구분하였다. 독립형은 옆으로 길게 놓아도 문제는 없지만, 길다란 곡선이나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길가, 도로변 그리고 좁은 산책로 등에 주로 설치된다. 가변형은


독립형과 같이 길가나 도로변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공원과 같은 넓은 공터에 연 이어 놓여져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가변형은 보행자 전용공간이나 넓은 공원 등에 주로 설치된다. 이러한 독립형과 가변형은 다시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재료, 색상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특징을 서술하였다.

Table 3. Separate benches

	국 내		국 외	
	이미지	특징	이미지	특징
1		목재와 금속. 나타내고자하는 문양이나 이미지를 등받이에 표현.	 (남아공화국)	금속관과 다양한 칼라 연출이 가능하고, 다리가 따로 없이 금속을 다리를 이용함.
2		금속과 부드러운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벤치.		앉는 부분의 따뜻함을 위해 목재사용. 육면체의 인조대리석을 중심으로 한 모던디자인.
3		어린이 대공원에 놓인 등받이 없는 벤치로 대리석과 방부목 사용.		여러 개의 의자가 뒤엉켜있는 듯한 목재로 된 하나의 벤치.(독일) 목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긴 벤치.
4		유기적인 형태.		금속관으로 만들어진 등받이 없는 벤치로 버스정류장이나 도로변에 설치.(일본)
5		금속과 목재를 사용한 건축적인 요소가 가미된 벤치.		앉는 좌판을 구분하는 것이 사람의 형상이나 나무로 되어있음. (이스라엘)
6		경기도 안양에 설치되어있는 화려한 목재벤치.		두 개의 벤치가 모서리에서 잇갈리게 조립되어 있는 목재벤치.
7		사람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를 담은 벤치.		건축적인 요소가 가미된 목재벤치.

독립형의 벤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목재, 금속, 대리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기하학적인 모던디자인부터 이야기가 있는 사실적으로 표현된 벤치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어떠한 장소에 독립적으로 서있기 때문에 양산개념의 벤치보다는 예술적인 디자인과 색채표현이 두드러진다.

Table 4. Variable benches

	국 내		국 외	
	이미지	특 징	이미지	특 징
1	 <small>광남신도시비행</small>	빨간 금속관이 조형물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놓여있음.		여러 개가 붙어 이어지면 흐르는 듯한 곡선이나 원이 됨.(독일)
2		서울시 벤치공모에 당선된 시민작품으로 벤치 뒷부분은 자전거 보관도 가능함.		마치 흐르는 강과 같은 이미지.(독일)
3		하나의 유니트를 가로 세로로 붙여 나감.		석재기둥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스템.(독일)
4		좌판 밑에 조명이 설치되어있고, 무한정 이어갈 수 있음.		지렁이를 연상케 하는 벤치로 실핏줄 같은 표면처리가 특징임.
5		순천대학에 놓여진 둥근 벤치로 시멘트나 플라스틱을 목재처럼 표면 처리함.		달팽이관 모양의 목재로 된 벤치로 마주보거나 옆으로 설치.
6		마치 물방울 모양의 유선형 벤치가 자유롭게 놓여져 있음.		유기적인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돋보임. (오스트레일리아)
7		원하는 길이 만큼 설치 가능함.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벤치. (오스트레일리아)

가변형의 벤치는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유니트가 연이어져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독립적인 벤치보다 양산개념이 많으며, 기하학적인 단순함이 더 강조된다. 또한 넓은 공간이 요구되는 만큼 독립적인 벤치처럼 화려하거나 독특한 디자인을 배제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와 단순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3-2 컨셉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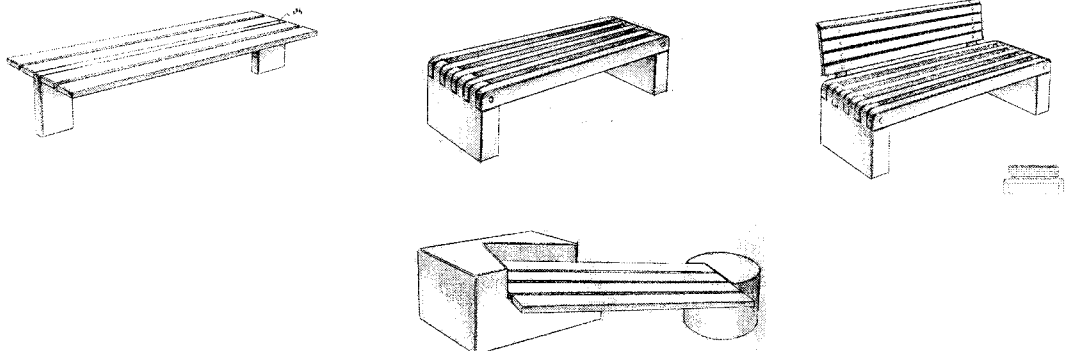
현대에 이르러 공공장소의 역할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앞으로 거리의 가구를 계획할 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크기 2. 재료 3. 수량 4. 설치 5. 적합성을 고려할 때, 거리의 가구들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불필요해서도 안 된다.

공공장소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벤치는 다루기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이다. 따라서 벤치가 올바르게 디자인될 때 우리의 공공장소는 보다 안락하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벤치를 도안할 때 아래와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앉았을 때의 편안함, 파괴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 계절 변화에 따른 재료의 견고함, 그리고 훼손이나 시대변화에 대응한 부분적인 재료의 빠른 교체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벤치를 고안해야 한다.(조 1998) 따라서 본 벤치디자인의 컨셉은 위의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벤치가 놓여지는 중량구의 지리적·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길가, 도로변, 좁은 산책로에 유리한 독립형 벤치
-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단순하면서 모던한 디자인
- 목재, 대리석, 금속 등의 친환경 재료
- 등받이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시리즈화 함.
- 재료의 자연색상 최대 활용
- 한국적 체형에 맞는 규격

3-3 아이디어스케치

스케치는 위의 컨셉에 근거를 두고, 크게 두 가지로 전개하였다. 하나는 대리석이나 시멘트를 재료로 덩어리감에 충실한 기하학적인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보급이 가능한 양산개념의 벤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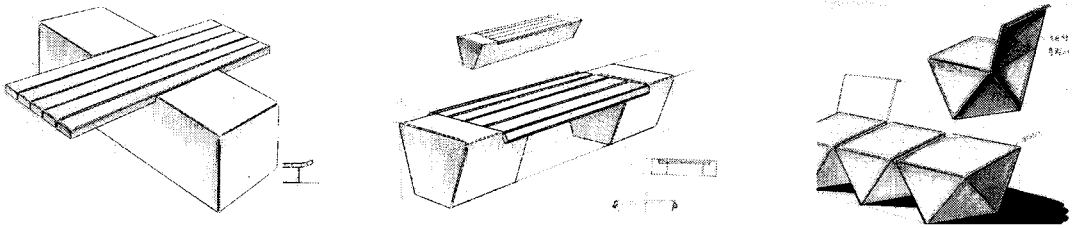


Fig. 9. Idea Sketch.

3-4 도면 및 렌더링

도면은 아이디어스케치 중에서 선정된 1개의 안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3인이 앉을 수 있는 1800mm 가로에 등받이를 포함한 깊이는 510mm, 등받이까지의 높이는 750mm, 바닥에서 좌판까지의 높이는 450m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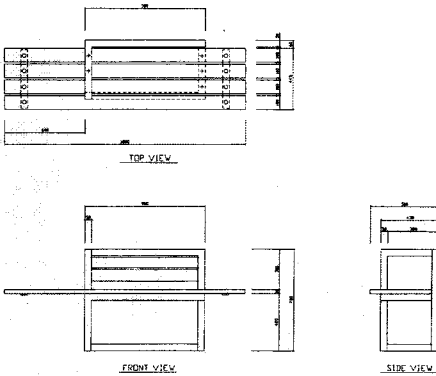


Fig. 10. 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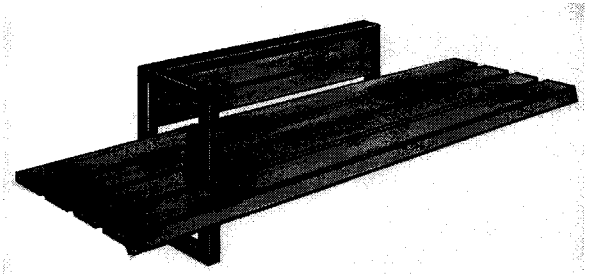


Fig. 11. Rendering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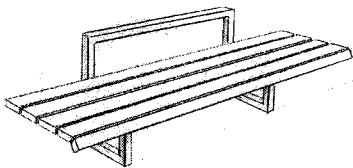


Fig. 12. Rendering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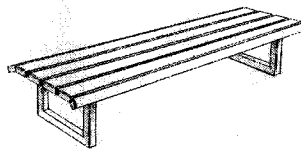


Fig. 13. Rendering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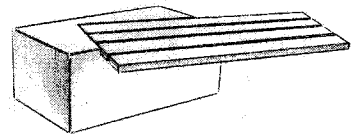


Fig. 14. Rendering IV.

렌더링은 마카와 색연필로 표현하였으며,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것<Fig. 11>, 등받이만 있는 것<Fig. 12> 그리고 다리와 좌판만 있는 것<Fig. 13>으로 시리즈화 하였다.<Fig. 11>의 벤치는 검정도장의 금속관 후레임이 'ㄱ'자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등받이와 팔걸이까지 이어지는 형태이다. 무릎 안쪽이 닿는 좌판의 앞부분은 곡선적으로 휘어져 편안함을 고려했으며, 등받이에도 2~3개의 목재판을 설치하였다. 땅에 닿는 부분에 나사구멍을 뚫어 바닥에서 올라온 나사에 너트를 조여 설치하며, 단순한 형태와 값싼 재료로 양산할 경우 무리 없이 보급이 가능하다. <Fig. 14>은 덩어리감이 강조된 벤치 중의 하나로 사각형 2

개가 약간 빗겨져 포개어진 형상으로 대리석 몸체와 방부목 좌판으로 이루어진 등받이 없는 벤치이다.

4. 결 론

중랑구는 기념비적인 역사적 유물이 있거나 도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3개의 산과 중랑천이 흐르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조용한 생활주거지역이다. 푸른 녹지로 둘러싸인 중랑구의 지리적·환경적 조건은 웰빙생활이 중요해지는 미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나 이벤트성 시설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가꾸고 살린 친환경적 공간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는 요지로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놓여지는 각종 시설물들도 재정비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벤치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면도 각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중랑구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벤치를 디자인하여 제안하였다.

길가, 도로변, 좁은 산책로에 유리한 독립형 벤치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단순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재료는 목재, 대리석, 금속 등의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원재료의 색상을 최대한 살려 주변자연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또한 등받이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시리즈화 하였으며, 한국적 체형에 맞는 규격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랑구라는 지역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벤치를 제안한 만큼 중랑구청의 도시디자인과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역의 벤치디자인 개발사업에 기초 자료는 물론 실제 목업(mock-up)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참고문헌

- 장상용. 이호형역. 2005.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휴식 산책길. 넥서스 북스.: 247
조숙경. 1998. 거리가구, 공공장소를 위한 제품디자인. 독일카셀종합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5
<http://culture.jungnang.seoul.kr/inc.php?inc=tour>
http://culture.jungnang.seoul.kr/inc.php?inc=tour/01_mangwoo